

2023년도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 출 장 국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 출장기간 : 2023. 9. 11. ~ 9. 16. (4박 6일)
- 출 장 자 : 창녕군의의회 의원 등 16명



창녕군의의회

목 차

I. 출장 개요	03
II. 주요 출장내용	05
· 공식 방문기관	05
· 주요시설 및 현장견학	15
III. 출장 소감	17
· 김재한 의 장	17
· 신은숙 부의장	25
· 이승렬 의회운영위원장	31
· 김종호 의회운영위원장	37
· 하종혜 산업건설위원장	39
· 홍성두 의 원	42
· 노영도 의 원	47
· 이동훈 의 원	49
· 박상재 의 원	54
· 이가은 의 원	61
· 김정선 의 원	68
IV. 발전방향(총평)	74
· 참고자료	76
1. 싱가포르 국가현황	76
2. 말레이시아 국가현황	77

2023년도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I 출장 개요

1. 출장목적

-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방문국가의 의회를 공식방문하여 지역 고유의 환경에서 발전해온 의회제도와 운영현황 정보의 공유·분석을 통해 지방자치제도 발전 및 선진의회 구현
- 지역경제발전에 필요한 모범사례와 안전, 재난, 복지, 지역특화 사업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시설을 직접 접함으로써 의원 전문성 향상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도모

2. 출장기간 : 2023년 9월 11일(월) ~ 9월 16일(토) / 4박 6일

3. 방문국가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4. 방문기관

- 말레이시아 쿠알라 랑갓시의회
- 말레이시아 소방재난국
- 싱가포르 장애인복지시설

2. 출장자 명단

연번	직 위	성 명	비고
1	의 장	김재한	
2	부 의 장	신은숙	
3	의회운영위원장	이승렬	
4	기획행정위원장	김종호	
5	산업건설위원장	하중혜	
6	의 원	홍성두	
7	의 원	노영도	
8	의 원	이동훈	
9	의 원	박상재	
10	의 원	이가은	
11	의 원	김정선	
12	사무과장	오주석	
13	전문위원	하연옥	
14	의정팀장	하왕훈	
15	주 무 관	윤재상	
16	주 무 관	한주성	

공식방문기관

1. 쿠알라 랑갓 시의회

- 일 시 : 2023년 9월 12일(화) 10:00
- 장 소 : Kuala Langat Municipal Council
- 주요내용
 - 쿠알라 랑갓 시 소개 및 홍보영상 시청
 - 쿠알라 랑갓 시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 브리핑 청취
 - 의회운영방법, 추진성과 등 질의·응답
- 방문결과
 - 쿠알라 랑갓은 Slangor 주의 9개 도시 중 하나로 7개의 자치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는 다시 24개 구역으로 나누어짐.
 - 말레이시아의 정부는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음.
 1. 중앙정부
 2. 시, 도
 3. 로컬정부(지방정부)
 - 중앙정부의 행정주관은 총리이며, 쿠알라 랑갓은 로컬정부에 속해 있음. 시는 9개의 부서가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있고, 의회는 의장, 부의장, 24명의 의원과 635명의 직원으로 구성됨(일반사무직 596명, 전문직 39명)
 - 인구는 2020년도에 30만 7787명, 2030년에는 42만 3천9백명을 목표로 함. 인구의 44.5%는 도시 거주자, 55.5%는 농촌 거주자로 다른 도시와 다르게 아직도 농경지도 많고 개발되지 않은 지역도 많음.
 - 메이저 고속도로 3개가 있고, 신규 고속도로가 있어 공항과 시내 등으로 연결되는 우수한 도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 주거지, 상가,

빌딩들이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개발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임.

- 쿠알라 랑갓 시는 경제 개발뿐만 아니라 관광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자연과 문화(사원, 바닷가 등)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보존할 것임. 개발하면서 가장 중요한 교통, 산업, 환경, 관광까지 함께 개발하는 쿠알라 랑갓이 될 것임.

○ 질의응답

질문) 우리 창녕군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있고, 이는 가장 심각한 문제임. 쿠알라 랑갓의 2030년도 인구 예측을 보면 37% 증가라는 놀라운 수치를 보이고 있음. 인구 수치를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지금까지의 성장률을 기반으로 하여 2030년도 인구 전망 수치가 나오게 된 것임. 복지, 교육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관리·지원하고 있어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음. 말레이시아 국민의 평균 결혼 적령기는 24살이고 아이도 많이 낳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됨.

질문) 24개 구역으로 이루어진 작은 정부의 책임자는 누구인지?

답변) 24개 구역의 지도자(의원)들은 정부에서 임명함.

질문) 주요사업 내용 중에 하이테크, 철, 조선업 등은 쿠알라 랑갓 시가 주도하는지?

답변) 쿠알라 랑갓 시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관리함. 쿠알라 랑갓 시에서 만든 ‘일렌텍’이라는 기업은 한국 기업과 함께 하고 있음. 말레이시아에 삼성과 같은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지만 쿠알라 랑갓에서는 이 기업만이 유일한 한국 기업임.

○ 관련사진

쿠알라 랑갓 시의회 공식방문



2. 말레이시아 소방재난국

○ 일 시 : 2023년 9월 13일(수) 10:00

○ 장 소 : FIRE AND RESCUE DEPARTMENT OF MALAYSIA(FRDM)

○ 주요내용

- 말레이시아 소방재난국 브리핑 청취
- 소방안전 현황 및 정책 관련 질의·응답

○ 방문결과

- 말레이시아 소방재난국은 1976년에 설립되었으며, 1976년 이전까지는 주정부가 소방서비스를 진행하다가 1981년부터는 ‘말레이시아 소방국’이라는 명칭으로 지방정부에서 진행하고 있음.
- 1997년에 현재의 명칭인 ‘말레이시아 소방재난국’으로 변경되었고, 현재 336개의 소방서와 약 14만명의 소방공무원이 활동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소방재난국은 화재예방 및 소방서비스 제공, 안전 및 소방 관련 정책집행,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전한 환경과 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한 47개의 정책과 102개의 하위계획들이 있으며, 이 계획들은 다시 252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화재와 안전, 교육에 대한 정책들로 구성됨.
- 1988년 제정된 소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5가지 수행과제가 있음.
 1. 화재진압 및 예방과 통제
 2. 화재발생 시 생명과 재산 보호
 3. 화재비상구 존재 여부 확인 및 유지 관리
 4. 화재의 원인, 성격에 대한 조사
 5. 재난 발생 시 생명과 재산보호 등 인도적 봉사 수행
- 소방국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수는 14,653명이며, 비정규직으로 746명이 있음(각 부서, 팀 인원수 및 설명 이하 생략). 법률소, 5개의 화재와 안정에 대한 교육 기관, 항공에 관한 기관 등이 있음.
- K90의 훈련병들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는 작업을 하며, 도시에서 화재 발생 시 구조와 수색작업을 진행함. 훈련 개는 사체 수색, 재난 인명구조, 산 혹은 동굴 속 인명구조 훈련을 받음.
- 말레이시아 소방국은 소방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 중이며, 국내외 다양한 교육기관 및 정부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음. 한국의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도 MOU를 체결하고 자주 교류하며 정보 공유 및 정책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질의응답

질문)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다고 했는데 담당분야, 채용 등에 있어 어떻게 구분되는지?

답변) 모두 정규직이며 임금,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라 유니폼을 입지 않아 비정규직으로 표현을 한 것임.

질문) 한국 국가공무원 중 유일한 계급이 있는 공무원이 군인, 소방 등인데 말레이시아도 이와 같은지?

답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7개 계급이 있음.

질문) 한국 KFI와는 MOU 체결을 통해 어떠한 교류를 하고 있는지?

답변) 소방제품의 기술요인들에 대해 KFI에서 관리를 하고, 테스트 및 인증이 완료되면 말레이시아 소방서비스에서 사용하게 됨

질문) 대한민국에서는 소방 분야가 3D 업종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말레이시아에서의 인식은 어떤지?

답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직종이지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인식은 좋은 편임.

질문) 소방 출동 시 자동차 이동 등 시민들의 협조가 잘 되는지?

답변) 대도시는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하지만 시민들이 잘 비켜주는 편임. 교통이 너무 많이 막힐 때는 아예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삼륜 오토바이를 활용한 화재구조·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음.

질문) 한 달 기준 출동횟수 및 출동시간 등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 푸트라자야에서만 한 달 평균 23건 정도 됨, 평균적으로 10분 안에 출동 가능함. 신고 전화 후 준비하고 차에 이르기까지(출동준비까지)는 약 60초가 걸림.

질문) 소방차 편성 및 구조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답변) 소방차 탱크에는 초기화재 진압을 위한 물과 공기가 들어있음. 말레이시아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를 오토바이에 싣고 감. 긴급 구조를 먼저 한 후 앰블런스 차량을 기다리는 순서로 진행되며, 기도가 막히지 않게 도와주는 장치와 자동적으로 기도가 열려 숨이 막히지 않게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 등이 있음.

○ 관련사진

말레이시아 소방재난국 공식방문



3. 싱가포르 장애인복지시설

○ 일 시 : 2023년 9월 15일(금) 10:00

○ 장 소 : Bizlink Centre Singapore

○ 주요내용

- 센터 소개 및 브리핑 청취
- 운영 및 관련 정책 질의·응답

○ 방문결과

- 장애인시설 Bizlink는 1986년에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며, 불우이웃과 장애우분들이 독립을 할 수 있고, 스스로 자존감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이후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체임.
- Bizlink에서는 소외된 장애인들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이는 일자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Bizlink와 같은 비영리단체들 없이도 지속적으로 자발적인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킹과 서포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함.
-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정부와 함께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트레이닝하여 다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하며, 신체적·심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돕고 있음.
- 직원 모두가 싱가포르인이며 이들이 18세 이상 250명 정도의 성인들을 돕고 있으며, 신체적 건강 회복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이들이 사회로 환원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훈련 프로그램은 기본 6개월 과정이며, 도움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1년 정도 연장 가능함.
- 일자리 실습 과정은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모아 간략하게 세분화 된 일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임. 이는 우리 센터가 자랑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많은 단체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차별화 된 프로그램임. 일에 대한 스킬을 만들어 주는 것만이 아닌 일자리를 직접

제공해 주는 토털 패키지로, 2~3년 전에 신규 도입한 프로그램이며 코로나 이후 이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수를 늘려가고 있음.

- 주요 교육훈련 프로그램

1. 콜센터 훈련
2. 데이터 레이블링 훈련(엑셀 및 데이터 응용)
3. 이커머스 마켓 (마케팅 관련하여 스킬을 배우는 프로그램)
4. 사회성 훈련
5. 요리, 기술 등 훈련
6. 그래픽디자인 훈련

-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 중 사람들과 어울려 만나다 보면 훨씬 더 빨리 회복이 가능한 분들은 심리상담가 등 전문가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있음.

- 보호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정보 및 금전적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음.

- 스킬만이 아니라 스스로 감정 조절이라든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실용적인 프로그램도 있음.

○ 질의응답

질문)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용 및 관련 예산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60명이 정직원이 약 240명 정도를 돌보고 있으며, 정부 지원금이 있지만 충분하지 않아서 자선단체 및 후원을 통하여 충당하고 있음. 싱가포르의 대기업은 사회에 환원에 대한 의무가 있어 기업 등을 통해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서 정직원을 고용할 수 있음.

질문) 시설도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지?

답변) 정부 보조금이 60%, 직접 모금 또는 펀드레이징한 금액이 25% ~

30% 정도이며,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지불하고 있는 금액도 일부 있음. 수익금을 합해 현재 건물 비용이라든지 운영비를 조달하고 있음. 건물세는 할인이 전혀 없으며, 보조금을 받고 최대한 운영할 수 있는 선에서 활용을 하고 있음. 400개가 넘는 단체들을 다 지원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절대로 100% 지원을 하지 않음, 정부 보조금 60% 외에는 각 단체들이 네트워킹이라든지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자원을 조달하고 있음.

질문) 직원들은 숙식 또는 출퇴근하고 있는지?

답변) 직원을 위한 기숙사는 없으며, 대신 교통수단 및 식사비를 제공하고 있음.

질문)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우분들의 근무환경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만족도 관련한 조사자료는 없음. 이곳에서의 만족보다는 충분한 준비와 훈련을 통해 실제적인 고용시장에 보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임. 이곳에서 교육받는 분들은 8시 30분부터 17시까지 활동함.

질문)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비중이 많은지?

답변) 30% 정도가 지적 장애인 혹은 귀나 눈 관련하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며, 나머지 30%는 하체를 쓰지 못하는 등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 나머지 40%가 자폐를 가지신 분들인데 이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가는 추세임. 앞서 설명했듯 우리 센터에서도 이런 분들을 고용하기도 함.

질문) 자폐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의료 케어나 트레이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전문 직원들이 있는지?

답변) 의료인을 배당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의료 관계자들이 있는 곳에 트레이닝을 보내 전문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음

○ 관련사진

싱가포르 장애인복지시설 공식방문



■ 주요시설 및 현장견학

1. 신행정도시 푸트라자야

- 푸트라자야는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급속한 인구증가 및 교통혼잡 등 한계에 처한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건립된 신 행정 도시이며,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과 쿠알라룸푸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최고의 접근성을 지니고 있음.
- 1990년 초 부지 선정 및 신도시 설계를 시작하였고, 1995년 10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 1999년부터 정부 주무부처 이전을 시작하여 2001년 2월 신 행정도시로 공식 기능하고 있음. 현재 왕실과 입법부를 제외한 국가 행정기능의 이전을 완료하였다고 함.
- 푸트라자야는 행정 중심지로서의 기능과 함께 문화, 주거, 상업시설을 포함하는 다기능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시의 1/3 이상이 인공호수와 녹지, 정원으로 구성되어 자연환경 및 문화의 가치 또한 반영하고 있음

2. 세계문화유산 말라카

- 2008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500년의 식민통치역사를 지니며 항구도시로서 동서양의 문화가 어우러져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곳임.
-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2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서양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역사·문화적 특성 및 풍부한 관광자원으로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3. 싱가포르 보타닉 국립식물원

- 싱가포르 최대의 국립식물원으로 2015년 7월 유네스코 문화유산지구로 선정되었으며, 식물원의 대부분은 보존을 위해 개발이 규제되고 있으며 싱가포르 계획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함.
- 1859년 개관 이래 식물원의 발전상을 입증하는 다양한 식목 및 건축물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휴식 공간 뿐 아니라 식물학 및 원예학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보존과 교육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음.

4. 싱가포르 도시계획관(URA)

- URA는 싱가포르의 도시계획과 개발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도시계획 행정의 기간별 마스터플랜과 세부실시계획에 대하여 시민들이 항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도시 개발 및 재개발 과정에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
- 싱가포르 탄생부터 현재를 이해하고, 장래 입지하게 될 시설물 등 미래를 향한 청사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싱가포르 국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싱가포르에 대한 이해와 홍보 기능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음.



김재한 의장

○ 의정연수를 시작하며

2023년도 창녕군의회 공무국외 의정연수를 일주일 앞두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서 6시간 30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한나절을 비행해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우리나라와 종교도 음식도 생활도 다른 문화권의 국가로 간다는 것은 새로운 환경을 보는 것이기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문화를 마주한다는 낯선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 쿠알라룸푸르 도심의 이미지

그러나 말레이시아에 와보니 낯설기보다는 친근하고 다정한 인상을 받았다. 첫날 저녁 쿠알라룸푸르 야시장에 잠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장시간 비행으로 지쳐있었지만 야시장의 다양한 먹거리와 북적거리는 관광객들을 보니 기운이 솟구쳤다. 쿠알라룸푸르가 왜 활기찬 국제도시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

쿠알라룸푸르의 화려한 야경도 인상적이었는데, 도심에는 고층 빌딩이 즐비했다. 특히 우리나라 삼성물산에서 건설한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는 말레이시아에서 본 건물 가운데 최고로 웅장한 분위기를 자랑했다. 또 빌딩 숲 사이 곳곳에 존재하는 이슬람 사원은 말레이시아의 전통과 현대 간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쿠알라룸푸르의 아름다운 전경은 KL타워 전망대에서 감상할 수 있었다. KL타워의 총 높이는 무려 해발 412M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높은 빌딩이라고 한다.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276M 전망대에 내렸을 때 깔끔하고 정돈된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말레이시아 국기가 뻑뻑하게 게양되어 있던 거리의 모습도 남다르게 보였다. 얼마 전 8월 31일은 말레이시아의 독립기념일이었다고 한다. 메르데카 데이라고 불리는 국가적인 행사로서,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전 국민이 장기간 국기를 게양한다고 한다. 거리뿐만 아니라 주택 곳곳에 게양된 말레이시아 국기를 보면서 말레이시아인들의 남다른 애국심을 느꼈다.

쿠알라룸푸르는 말레이시아의 수도답게 밤에도 거리의 조명이 굉장히 밝았다. 야간조명은 도시의 치안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쿠알라룸푸르는 말레이시아 다른 도시에 비해 치안이 좋은 편이라고 한다. 치안은 관광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안전이 확보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을 관광지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국제도시의 명성은 거리의 작은 조명에서부터 시작되는 듯했다.

○ 말라카에서 창녕을 떠올리다.

말라카는 희생의 역사가 담겨있는 지역이다. 도시 곳곳에 제국주의와 관련된 문화재가 많았는데, 문화재의 보존성과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2008년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말라카는 집중적으로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서 말라카의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리와 문화재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등을 참고하여 창녕의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개발이 필요해 보였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다. 말라카의 야경은 쿠알라룸푸르와 다른 매력이 있다. 고층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한 쿠알라룸푸르의 야경과는 달리 말라카는 말라카 강을 중심으로 오래된 문화재와 조화된 고풍스러운 야경이 인상적이었다.

습도가 높은 말레이시아에서 강을 끼고 있다는 것은 관광지로서 엄청난 장점인 것 같았다. 강은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키는 요인이자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시원한 느낌을 준다. 이런 이점을 살린 관광자원이 말라카 리버 크루즈인데, 리버 크루즈는 여름철 높은 습도와 강한 햇볕으로 도보로 이동하기 힘들었던 말라카 거리를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해준다.

말라카는 여러모로 창녕을 떠올리게 만드는 도시 같았다. 창녕에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도심에 창녕천이라는 생태하천이 있다. 비사벌 문화제, 창녕문화제 야행 등 굵직한 지역축제가 창녕천을 중심으로 열린다.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창녕천과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연계되어 새로운 관광자원이 개발되기를 기대해본다.

○ 랑갓시의회와 소방재난국 공식 방문

말레이시아 공식 방문 기관 중 가장 먼저 랑갓시의회를 방문하였다. 말레이시아는 정치적으로 내각책임제 국가로, 의회가 집행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그래서 예산관리, 주민복지, 도시개발 등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의회가 하기 때문에 의회의 역할이 아주 크다.

랑갓시(쿠알라 랑갓)는 말레이시아 셀랑고르 주에 속하며, 랑갓시의회는 1977년 설립되었다고 한다. 랑갓시는 총 24개의 행정구역(ZONE)으로 세분화되어있고 각 주민대표 수장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17행정구역(ZONE)을 관리하는 하리다스 라마시미(Haridass Ramasamy)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관계자들이 우리를 환대해 주었다.

랑갓시는 수도 쿠알라룸푸르와 접해있어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관광산업까지 발달하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사통팔달 고속도로 망이 있고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과 가까운 것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팜유 산업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제조업이 발달하고 있다고 한다. 또 해안과 인접해 있어서 관광산업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점점 커지는 도시 규모답게 랑갓시의 인구는 2001년 9만 7천여 명에서 2010년 20만 명, 그리고 2020년 기준 30만 7천여 명으로 증가하였다고 들었다. 의회 관계자는 2030년 인구가 42만 3천여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그만큼 랑갓시는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2000년 창녕군의 인구는 7만 3천여 명이었는데 현재는 5만 7천여 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랑갓시는 우리 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데도 인구 증가 추세를 보니 놀라웠다.

랑갓시의회는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어떤 목적을 위해 발전시킬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명확해 보였다. 랑갓시는 지리적 이점 아래 점진적으로 지역의 산업 구조 변경을 꾀하고 있었다.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역의 특색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있으며, 아름답고 조화로운 쿠알라 랑갓이라는 슬로건 아래 농촌과 도시의 협업을 넘어 세계적인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랑갓시의회의 친절과 예의는 지금도 여전히 잊히지 않는다. 우리를 맞이한 직원들의 따뜻한 태도나 표정은 친밀감을 넘어 편안함을 느끼게 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이국에서 첫 공식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기 마련인데, 랑갓시의회의 많은 배려 덕분에 이후의 말레이시아 일정이 훨씬 편안하고 즐거웠던 것 같다.

랑갓시에는 대민 친절을 중시하는 MPKL 윤리강령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친절과 예의는 말레이시아인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덕목으로서 중시되는 것 같았다. 도시, 더 나아가 국가에 대한 인식은 친절로부터 시작된다. 오고 싶고, 있고 싶은 매력을 주는 것이 친절이다. 독립기념일 행사 등 많은 일정에도 우리 의회를 환대해 준 랑갓시의회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랑갓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다음으로 푸트라자야 소방재난국을 방문하였다. 우리 의회가 소방재난국을 방문한 이유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재난대응 시스템의 관리 체계를 비교 견학하기 위해서였다.

말레이시아 소방재난국 광장 앞에는 각종 소방 장비들이 즐비했고 오전부터 훈련받는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다. 인명구조를 담당하는 부서답게 치밀한 훈련으로 유사시 대응력을 높이고 있었다.

소방재난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네 가지 달성 과제가 있는데, 첫째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 둘째 시민에게 지역사회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셋째 협력과 참여, 넷째 소방 및 소방안전 분야를 효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양한 소방 장비 확충과 구조전 활용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교류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통계로 성과를 보이는 것 같았다.

말레이시아 소방국의 최근 3년(2019~2021)간 사건접수 및 사고 현황 통계에 따르면, 긴급전화는 평균 136,729건, 화재발생은 평균 41,829건이었다. 2022년에는 긴급전화 126,799건, 화재발생 28,489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데, 앞서 언급한 네 가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사자의 국가라고 한다. 싱가포르의 어원인 싱가포르(SINGA)는 사자라고 한다. 싱가포르의 국장(國章)에도 사자가 그려져 있으며 사자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도 있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자국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다고 한다. 그럴만하다. 싱가포르는 영토는 작지만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랐다. 본래 독립 당시만 해도 이곳은 물적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땅이었기 때문에 국민 경제 수준이 굉장히 낮은 국가였다고 한다. 짧은 기간 안에 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싱가포르의 인적자원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닮은 면이 많은 국가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국토 면적이 크지 않을뿐더러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호랑이의 나라로 불렸다. 과거에는 경제구호를 받는 최빈국에서 오늘날 선진국으로 우뚝 섰다.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루어 낸 것도 비슷하다. 나라의 부강함의 조건은 넓은 영토와 풍부한 물적 자원이 아니다. 장기적인 정책과 인적자원 그리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때 강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싱가포르의 도시설계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임에도 녹지에 많은 신경을 쓴다는 느낌을 받았다. 도시가 전체가 공원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녹지가 많았고 조경 관리 또한 우수했다. 대표적인 예가 싱가포르 국립식물원 보타닉가든이다.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명성에 걸맞게 아름다운 조경을 뽐내고 있었다.

풍부한 녹지 덕분에 거리에는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조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연과 조화를 강조하는 싱가포르. 작은 영토에 집약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 녹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상생을 추구함으로써 방문객들로 하여금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게 한다.

싱가포르는 녹지와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조차도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 같았다. 싱가포르는 건축물의 하자보수 기간이 무려 30년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건축물의 디자인이 각각 달라 설계 단계에서 엄청난 공을 들인 것 같았다. 주택은 순수한 주거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작품으로서 도심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보였다. 싱가포르가 미래지향적 에코시티로 불리는 이유는 이렇게 치밀한 관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도시 설계의 특징은 우리가 방문한 URA 박물관에서 잘 드러났다. 싱가포르 도시는 절대 단기 계획으로 조성하지 않는다. 오늘날 싱가포르 강 일대는 잘 가꾸어진 정원과 상점가가 조성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무역 물품을 보관하던 창고로 가득했는데, 이를 정리하는데만 10년 이상이 걸렸다고 한다. 이처럼 영토 안의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중장기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다. 싱가포르는 영토가 작기 때문에 단순히 잔여지가 있다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

라고 한다.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 싱가포르 중장기 계획에 부합한 것인지 설계 단계에서부터 하나하나 치밀하게 검토한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 의정연수를 마치며

연수 마지막 날 밤.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했다. 탑승수속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공항을 둘러보았다. 세계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공항으로 알려진 창이공항은 그 명성대로 공항의 규모가 엄청났다.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고 느끼는 순간이었다.

이륙 후 하늘에서 내려다본 싱가포르의 모습도 대단히 놀라운 광경이었다. 싱가포르 바다 앞에는 수많은 선박으로 가득했는데, 어두운 밤 사이로 붉은 빛 선박 조명이 바다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싱가포르는 여객산업 뿐만 아니라 물류산업도 세계적인 수준이었음을 실감했다.

이번 의정 연수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두 국가를 견학하면서 우리 군에 도입해야 할 선진시책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시간이었다. 4박 6일 간의 한정된 시간으로 모든 것을 담아갈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찾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군이 직면한 인구와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과 역사 도시로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 신은숙 부의장

○ 의정 연수를 시작하며

통상적인 연수는 우리나라에는 없거나 우수한 문물이 있는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이다. 싱가포르를 이미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서, 산업·복지 등 많은 시책을 참고할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말레이시아는 GDP 등 경제 규모면에서는 우리나라와 비교해 선진국은 아니다.

다만,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세종특별시의 모델인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신도시나 풍부한 관광 콘텐츠 등은 우리나라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우수하다. 또한 우수한 사례만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니라, 귀감으로 삼아야 할 부분도 우리 군정 시책 추진 시 참고 사례가 되는 만큼 모든 일정 하나하나를 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의정 연수에 임하게 되었다.

○ 바투 동굴

바투 동굴 탐방은 이번 의정 연수에서 기대되는 일정 중 하나였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인데 바투 동굴은 힌두교의 성지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주차장 아래에서부터 많은 계단과 커다란 동굴 입구가 보였다. 특히 파괴의 신 시바의 장남인 무루간 황금 동상이 압권이었었는데, 아파트 15층은 훌쩍 넘길 것 같은 엄청난 높이에 놀랐다. 마치 동굴을 지키는 수호신 같아 보였다. 거대한 동상 옆에는 형형색색의 계단이 인상적이었다. 이 272개의 계단은 인간의 272개 고뇌를 상징하는데, 계단을 오를수록 고뇌가 사라진다고 한다. 힘겹게 마지막 계단을 오르고 나니 정말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고뇌에서 해방된 것 같았다.

바투 동굴 바로 옆의 숲에는 많은 원숭이들이 서식하고 있었는데, 계단을 오르는 도중 사방에서 출몰하는 원숭이들을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보지 못했던 광경이라 신기하면서도 관람객들의 안전이 우려기도 하였다.

바투 동굴의 계단은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아찔할 정도로 고도가 높았다. 관광객들의 소지품을 빼앗기 위해 갑작스럽게 출몰하거나 일부 사나운 원숭이가 있어 놀란 관광객들의 낙하 사고가 걱정되는 관광지였다. 특히 원숭이를 경고하는 안내판이 없어서 아쉬웠다.

또한, 길거리 환경은 개선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숭이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갖가지 음식물을 길거리에 투척하는 관광객들이 많았는데, 이로 인해 거리가 지저분하고 악취가 발생하였다. 위생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와 대조되는 광경이었다.

그렇지만 말레이시아에는 이런 관광화 가능한 자원이 있어서 부러울 따름이었다. 관광지 위생은 개선과제로 남았지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여 여행자들에게 사랑받는 관광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72개의 계단을 올라오니, 동굴 안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거대한 힌두교 사원을 비롯하여 엄청난 세월을 거쳐 형성된 종유석은 마치 지구가 아닌 다른 세계를 연상케 했다. 동굴 외부에서는 무루간 황금 동상의 위엄과 동상을 세운 인간의 위대함을 느꼈다면, 동굴 내부에 들어와서는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다.

바투 동굴 탐방을 마치고 나니 힌두교가 왕성했던 옛 말레이시아가 떠오른다. 또한 이슬람 문화권 국가임에도 소수 종교의 다양성 인정해주는 말레이시아의 개방성도 인상적이었다. 이곳은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흔적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관광지라고 생각된다.

○ 말레이시아에서 느낀 우리나라 지하 공간 재난 대응 과제

말레이시아에 와서 가장 독특하다고 느낀 것은 고층 아파트나 빌딩에 지하 주차장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 고층 건물은 지상 5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설계되어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말레이시아 땅은 철광석과 주석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지하 깊이 시공하기가 까다로운 탓에 건축 비용 절감을 위해 지하 주차장 건설을 기피 한다고 한다. 무엇보다 말레이시아는 연평균 강수량이 많아 지하 침수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건설을 자제하는 이유도 크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도 많다. 그런데 최근 기상이변으로 열대성 기후가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다. 집중 호우가 잦아지면서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반지하 주택 등 지하 공간의 침수 피해도 많아지고 있는데, 차수판 설치로 대처하고 있기는 하나 앞으로 이런 기후가 지속된다면 지하 공간에 대한 방재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지하 구조물은 지하 배수 및 방재설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말레이시아와 같은 호우 대응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푸트라자야 행정수도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는 전형적인 신도시의 느낌이였다. 말레이시아의 행정수도로서, 정부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 조성된 이 도시는 관광객의 이목을 끌만한 특별한 관광 요소가 없어 관광객보다는 현지 거주민들이나 직장인들이 많은 느낌이였다. 그렇지만 도시 이곳저곳에는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화려한 건축물들이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웅장한 총리 관저나 은은한 핑크빛을 띠는 푸트라 모스크가 인상적이였다.

푸트라자야가 세종특별시의 모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행정수도로써 많은 행정기관이 밀집되어 있었고, 효율적인 도로망, 조정 관리, 풍부한 녹지 등 도시관리가 여태 봐온 말레이시아의 도시들과는 달랐다. 수도 쿠알라룸푸르가 시끌벅적하고 활기찬 느낌이라면, 이곳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도시 같았는데 푸트라자야의 특징은 말레이시아 공무원들만 이곳에 거주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도시의 치안이 좋고 주거 환경이 뛰어나 보였다. 실제로 이곳은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주거 만족도가 높은 곳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 창녕군도 신도시인 대합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푸트라자야와 달리 주거단지로의 기능이 크지만, 각종 산업시설이나 상업시설 및 녹지 조성도 예정되어있어 향후 도시 개발에 많은 부분에 참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 만족도가 높은 도시, 창녕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자 한다.

○ 싱가포르, 1차산업이 없는 나라

2023년 기준 싱가포르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7만 7천 달러로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무려 우리나라(3만 5천 달러)의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싱가포르라는 나라의 조건만 놓고 본다면 미약하기 그지없다. 우리나라 부산광역시 면적 정도의 조그마한 영토와 생산되는 자원이 없는 척박한 땅 등 자생하기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것은 놀라울 따름이다.

싱가포르는 작은 영토를 집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발전 전략이 있는 것 같다. 싱가포르는 1차산업이 없다고 한다. 의정연수 일정 동안에 논밭을 보지 못했다. 작은 영토에서는 1차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신 싱가포르의 제조업, 물류업, 관광업, 금융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였다고 한다.

싱가포르의 말라카 해협에 위치한 입지 특성상 예로부터 물류업이 발달한 지역이었다고 한다. 싱가포르 연안에 떠 있는 무수히 많은 선박과 세계 최대규모의 창고공항은 세계적인 싱가포르 물류업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싱가포르 입지 특성을 살린 산업을 발전시킨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본다. 특히 싱가포르는 창고공항 제5 터미널 신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객·물류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도 이 분야의 발전이 무궁무진해 보였다.

또한, 싱가포르는 관광업도 세계적인 수준이다. 머라이언 상, 마리나 베이샌즈, 등 화려한 랜드마크를 내세운 관광지가 많았는데, 특히 우리가 방문한 센토사 섬은 섬 전체가 관광 테마로 구성되어 있어 더욱 인상 깊은 곳이었다. 또한 관광 산업이 발달한 말레이시아 인접한 덕분에 관광객 방문에 반사이익 효과도 얻는 것 같았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투자회사들이 본사를 두고 있는 곳이다.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불릴 정도로 금융업이 발달하였는데, 많은 강대국들이 싱가포르를 가볍게 보지 않는 이유가 금융업의 발달에 있는 것 같았다.

싱가포르는 농축산물과 같은 1차 산업에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부유한 국가답게 경제성장의 외적인 부분을 수입으로 해결하는 것에 놀랍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주변국과 외교 갈등이 생긴다면 가장 위기를 맞이할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지구 온난화로 식량의 무기화가 대두되는 오늘날, 싱가포르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해진다.

○ 의정 연수를 마치며

코로나19 종식 후 처음 맞이하는 의정 연수. 세계화의 문이 닫혀 있다가 열린 시기에 연수를 가게 되어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열정적인 의욕을 가지고 임했던 4박 6일간의 일정이었다.

4박 6일이라는 기간이 짧을 수 있지만 이번 연수는 창녕군의 10년, 20년 중장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투 동굴에서 느낀 관광 선진화 과제, 푸트라자야에서 발견한 창녕군 신도시 발전 방향, 싱가포르의 산업전략에서 본 우리 군의 미래 투자산업 등 관광과 도시 개발, 산업전략 분야의 정책 개발에 여러모로 의미가 있었던 연수였다.

■ 이승렬 의회운영위원장

창녕군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한 지 1년여가 조금 지나 국외연수를 가게 되었다.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해외의 우수한 사례를 다양하게 경험해 보고 우리 창녕의 발전을 위해 적용해 보고자 하는 목적을 되새기며 출발하였다.

먼저, 김해공항에서 말레이시아 국적기를 타게 되었는데 비행기 내에서 승무원들이 기내식 제공 후 쓰레기 수거와 환경 정비는 미뤄두고 간식이나 기념품 판매에만 신경 쓰는 모습이 약간은 아쉬웠다. 만일 우리나라 국적기였다면 쓰레기를 먼저 수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부분이지만 항공기 내에서의 경험이 그 나라에 대한 첫인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고 느껴졌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하니 현지 가이드분께서 k-pop의 인기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뉴스로만 보던 것보다 훨씬 실감이 났다. 특히, 아직도 신분제가 남아있는 태국에서 서민 계급 출신으로 세계적인 가수가 된 블랙핑크 멤버 리사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인상 깊었다. 가수 한 명이 주는 파급력에 대해 체감하고, 나를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도 작은 영향력이나마 발휘하여 창녕을 빛내고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공식 일정으로 셀랑고르주 랑갓시의회 기관 방문을 하였다. 의회의 모든 구성원이 열린 마음으로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셔서 친절하고 정겨운 인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한 번 깨닫게 되었다. 군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중 한 명인 만큼 우리 군민들에게뿐만 아니라 특히, 외부 기관과의 만남에서는 늘 창녕에 대한 우호적인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랑갓시 소개 영상에서는 살기 좋은 도시 개발을 위한 지속 가능한 글로벌 수준의 도시 클러스터 구현을 미션으로 2025년까지의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고 있었다.

특히, 인구정책에 대한 내용이 인상 깊었다. 말레이시아 전체 인구는 약 3,430만 명 정도이며, 최근 10년간 적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랑갓시 인구도 1991년에는 46,588명에 불과했지만, 현재 예상 인구는 323,400명에 육박하며 엄청난 증가세를 보인다. 이처럼 랑갓시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역시나 1차 산업 위주였던 말레이시아가 1970년대 NEP(New Economy Policy)의 도입 이후로 상당한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이후 수도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개발 및 확충을 한 덕분이 아니었을까 싶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말레이시아는 관공서마다 큰 관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관사는 결혼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고, 직급순보다는 가족의 수(특히 아이)가 많을수록 큰 평수가 배정되며, 아이들을 위한 대출은 이자가 없다는 점에서 이 또한 인구 증가 정책을 위해 애쓰고 있는 면모라고 느낄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는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지만 고령인구 비중이 7%를 초과해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이를 막기 위해 현재 외국인 투자 확대와 이민을 장려하는 장기체류 비자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용률 상승을 위해 은퇴 시기를 늦추거나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을 강구하고 있다.

창녕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현재 고령사회를 넘어 인구절벽의 위기에 도래하고 있어 인구 증가는 지방사회에 있어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이 없다면 결코 인구 감소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녕으로의 유입을 위한 방법은 역시 기업 유치, 청년 일자리 증대, 인프라 구축일 것이다.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늘 모두의 관심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또한, 쿠알라룸푸르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측면도 많이 엿볼 수 있었다. 먼저, 인종 간 균형발전 정책을 보려면 도시를 이루고 있는 구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동남아시아 특유의 복합 사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곳은 말레이시아 인구 50% 이상을 구성하고 있는 말레이인과 중국계 말레이인이 절반 정도의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족이 혼합된 만큼 종교, 언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심지어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보니 직업도 마치 계급처럼 인종별로 나뉘고, 빈부격차도 매우 심각한 편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미푸트라라는 정책을 시행했다. 부미푸트라는 말레이계 인종의 소득 증진을 위해 고용 쿼터제, 대입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정책이었으며 실제로 시행 이후 말레이인의 소득 수준이 중국계와 인도계보다 매우 향상되었다. 하지만 민족 별 격차가 완화된 지금까지도 이 정책이 유지되면서 역차별 논란도 생겨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지역 간 균형발전에서도 힘쓰고 있는 면모가 보였다.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인구밀도는 전체 인구의 5.5%에 불과하다.

서울과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과밀 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주요 도시 중심의 경제 집중을 완화하고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꾸준히 실현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으로 랑갓시의회와 서로 기념품 교환의 자리에서는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특산품인 커피와 관련된 식료품을 맛볼 수 있었는데 지역을 홍보하고 제품화하기에도 매우 좋은 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우리 창녕에서도 마늘과 양파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 개발, 협업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지만 조금 더 대중적이고 접근성이 좋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3일 차에는 첫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소방재난국을 방문하였다. 역시나 단정한 제복을 갖추 입은 분들이 따뜻한 환대를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점심까지 준비해 주시는 세심한 배려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소방재난국에서 기억에 남는 차이점은 오토바이 구조팀이 있는 것이었다. 오토바이 구조팀은 화재, 의료, 긴급출동 분야로 구분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각각의 오토바이에는 기능에 맞는 장비들이 부착되어 있었다. 긴급출동 시 도로가 혼잡할 때는 오토바이가 먼저 출동하여 초기대응을 실행한다는 설명을 듣고 우리나라에도 작은 골목길이 많으니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찰용이나 헌병용으로 흔히 사이드카라고 불리는 오토바이를 주로 교통 단속 업무나 의전용으로 사용 중이다.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적용하여 소방 분야에서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면 자주 볼 수 있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출동 지연 등의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날에는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말라카라는 도시의 문화유산 탐방을 하였다. 말라카는 오늘날 말레이시아 역사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네덜란드 광장, 포르투갈군이 세운 산티아고 요새, 15세기에 지어진 사원 등 여러 건물을 둘러보았는데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아직도 직접 사용하며 관리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중하게 여기고 지켜온 것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우리 창녕에도 소중한 문화 자원이 많은데 이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의 공식 기관 방문도 뜻깊었지만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문화유산 체험을 통해 깨닫는 바가 컸다.

싱가포르에서의 첫 일정으로 1986년에 시작한 비영리 단체인 노인 복지 시설을 방문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노인, 소외 계층을 위해 교육 훈련을 함으로써 독립심과 자신감을 키우는 실무 교육을 하고 있었다. 수혜적 복지 정책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적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그들의 교육 목표인 듯했다.

싱가포르 또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지난 10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23년 기준 20%에 육박하고 있다. 출생아 수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 고령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비경제활동인구의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통합을 달성하고자 하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했다.

우리 창녕에서도 장애인 근로 사업장, 지역자활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소외계층의 사회활동 참여를 돕고 있다. 이들이 취업, 탈수급 이후에도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과 고용 프로그램이 더욱 개발될 수 있도록 군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음 일정으로는 싱가포르 도시계획과 개발을 전담하는 기관인 URA를 방문하였다. 이곳에서는 싱가포르의 과거, 현재, 미래의 도시 계획과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가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는지 직접 보면서 느낄 수 있어 좋았다. 싱가포르는 국토가 좁고 자원이 거의 전무하여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부 주도의 대외개방형 경제 정책과 관광사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 개척 전략으로 현재의 발전을 이룩해 내었다.

창녕도 창녕구경(9경)을 비롯한 관광자원이 적지 않은 편인데 이를 적극 활용한 지역 발전에 더욱 힘써야겠다고 생각했다. 그중 싱가포르 최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보타닉 가든은 테마별 공원을 구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데 아시아 최초의 어린이 전용 정원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전국 최대 규모 낙동강 유채단지가 있는 남지체육 공원에서는 축제가 열릴 때 체험이나 공연의 대상이 노인 연령층에 많이 치중된 편인데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어린이가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해 가족 관광객을 공략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번 국외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와 다른 환경과 자원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두 나라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가 잘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었고, 미비했던 점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느낀 바를 적극 활용하여 고민하고 연구한 분야에 대한 답을 찾고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어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김종호 기획행정위원장

창녕군의회는 중심에는 언제나 창녕 군민들께서 계신다. 이 자리를 빌려 소중한 연수의 기회를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

군민들과 소통하고 국내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방법도 있지만, 해외 기관에 방문하여 새로운 정책들을 체감하면 시야가 넓어지고 창녕군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 있을까하는 고민의 시간이 되기에 이번 국외 연수에 함께하게 되었다.

이번 국외 연수는 짧은 기간에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국민들을 위해 환경과 문화를 지키면서 정책을 보며 연수 내내 배우는 자세로 꽉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우리는 첫 일정으로 랑갓시의회를 방문하였다. 랑갓시의회는 1977년에 개원하여 현재 총 24명의 의원이 임명되고 있으며, 서비스관리·공공관계·엔지니어링·평가 및 자산관리·행정서비스 및 건강복지·도시개발·건축·건설·재정·법규 집행·허가·등록 등 우리 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업무를 시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랑갓시의회의 시스템과 발전방향 등을 토론하여 내실 있는 연수와 우호교류 협력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후, 말레이시아 소방재난국을 방문하였는데, 소방재난국은 셀랑고르의 자원 봉사 서비스 15명으로 1883년에 형성되었으며, 이후 자원 봉사 조직은 화재 및 구조 등 업무 세분화가 시작되어, 현재는 1만 4천여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소방재난국은 모든 주에 설립되어 말레이시아 각 지역의 소방재난 업무를 책임지고 있으며, 소방서, 경찰서 등 전부 공유되는 통합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어 피해상황에 맞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점과 비좁은 골목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오토바이로 출동하여 조기 진압에 나선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우리 창녕군 또한 말레이시아처럼 좁은 골목길과 비탈길이 많은 도심 중에 하나이므로, 소방서 및 경찰서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사항으로 보였다.

우린 중간중간에 문화유산을 많이 돌아보았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 행정도시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푸트라자야 행정도시는 수도의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이전시킨 도시로써 새로운 행정도시답게 사회간접자본이 잘 구축되어 있었고, 특히 공원이 아주 잘 조성되어 있었다.

푸트라자야는 단순히 행정도시가 아닌 문화 및 관광을 염두에 두고 계획도시로 만들기 위해 매우 고심한 흔적이 보였다. 말레이시아의 모든 도시에는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도시를 이루고 있었다.

이는 우리 창녕군 또한 도시계획 시 인공적인 설계대로만 조성을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자연경관을 잘 활용하고, 관광 또한 자연을 활용한 관광도시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국외연수를 통해 창녕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연수보고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 하종혜 산업건설위원장

○ 우리 군 의회 의장님을 포함한 16명으로 구성된 우리 연수단은 2023년 9월 11일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하여 4박 6일간(9.11.~9.16.)의 연수일정을 마치고, 연수기간 내 방문한 2개국(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에 대하여 본 의원의 소회를 밝히고자 한다.

○ 방문국인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는 18세기부터 대영제국의 식민 지배의 역사를 거쳐 2차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로 다민족, 다인종, 다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문화와 역사 전통을 존중하면서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통합하여 1997년 외환위기, 2001년 아시아 외환위기 등 세계경제의 침체속에서도 강력한 정부의 주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나라로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다섯 마리 호랑이 국가 중 하나이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하나로 불리고 있다. 이렇게 놀라운 경제성장을 한 점을 보면 그 내면에는 국민들의 고통분담과 경제 위기 시 대동단결한 모습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1960~1990년대 우리나라 고도 경제성장 및 IMF외환위기(1997~2001) 극복과 같은 시기와 유사한 점이 많은 나라라고 느껴진다.

○ 먼저 방문한 말레이시아는 13개 주와 3개의 연방 직할구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는 연방의회와 주의회로 나누고, 양원제로 상원과 하원이 존재한다. 이 중 랑갓시의회를 방문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예산 편성·결산 입법과정을 비교·분석하여 우리 군의회 운영에 접목하면 의회 선진화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든다.

푸트라자야(Putrajaya)라는 2001년 2월에 쿠알라룸푸르를 대신해 연방 정부의 새로운 행정수도로 세번째 연방직할구 가운데 하나로, 수상청이

제일 먼저 이전한 것은 말레이시아보다 선진국이라는 자부하는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꺾연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푸트라자야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행정도시'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신행정수도인 세종특별자치시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경제정책으로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히 추진하고 있었으며, 세계 최대의 주석, 천연고무, 팜유 생산국 및 석유의 자급자족 등 풍부한 천연자원의 기반으로 발전과 성장이 더욱더 기대되는 나라이며, 관광분야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을 관광 상품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쿠알라룸푸르의 마천루인 KL TOWER 건설에 우리나라 삼성건설이 참여한 것에 대하여 무한한 자긍심을 느꼈다.

또한, 세계 관광기구는 2012년에 말레이시아를 10번째로 가장 많이 방문한 나라로 선정했다. 이는 관광산업의 자산이 되는 다양한 관광 명소가 풍부하고 그것을 이용해 발전시키려는 국민들의 열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말라카의 경우 식민지 시대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관광의 편리성과 역사성 등을 모두 확보한 정책으로 많은 관광 수입을 획득하고 있다고 하니 부러울 수 밖에 없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 등 이슈화 되고 있는 재난·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재난관련 기관(소방재난국)을 견학·벤치마킹을 하여 우리 군의 재난안전사고 예방정책 수립 시 도움이 되고자 다짐을 해본다.

○ 다음으로 아시아 대표 강소국인 싱가포르의 경우 미국이나 호주처럼 19세기 많은 중국인, 인도인 이주민이 건설한 이민국가이면서 아시아의 스위스라고 불리고 있으며, 2023년 세계통화기금에서 1인당 국민소득은 실질구매력 13만불로 세계 3위, 아시아 1위로 그 위상이 드높고, 우리

나라 서울만한 소도시 국가이지만 아세안의 핵이자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청렴국가(세계 5위)이기도 하다.

또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무역 규모는 240억 달러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에서 통제하는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로 시장기반 경제와 강력한 국제무역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융성한 국가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국가이며, 국가 전부가 작은 정원을 연상시키는 느낌을 받았으며, 관광분야는 센토사섬, 랜드마크인 머라이언 상(37m), 싱가포르 최초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된 보타닉 가든 등 싱가포르의 관광은 주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선택 및 집중을 고려하여 개발을 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우리도 굳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환경을 바탕으로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든다.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관광지 롤모델이며, 많은 관광객의 찾아오는 싱가포르란 나라! 국토는 작지만 그 어떤나라 보다 크게 느껴진다. 정말 부러운 생각이 든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싱가포르에는 우리나라와 관련한 산업(K-Pop, K-뷰티, K-푸드) 등이 성장하면서 한국인 인구밀도 1위와 거주 한국인들의 증가, 마리나베이샌즈호텔 등 도시기반시설에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참여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새삼 느낀다.

○ 맺음말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의 기관 방문 및 도시·자연 환경, 시설, 관광지 등을 보고, 각오한 점과 선진행정 사례를 창녕군에 접목시켜 군민들의 삶이 현재보다 더 살기 좋고 윤택한 도시가 되도록 남은 임기동안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심하며, 연수보고를 마치고자 한다.

■ 홍성두 의원

■ 말레이시아 소방재난국 방문: 이륜차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불법주차, 교통혼잡. 우리나라에서 소방 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다. 길거리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다면 일분일초가 생사를 가르는 촉박한 시간에 놓이게 된다. 신속한 출동은 인명구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말레이시아 소방재난국에서는 이륜차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소방 오토바이는 우리나라의 소방 출동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 같았다. 최첨단 장비를 탑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소화 장비나 부목 기구 등 응급처치가 가능한 물품이 실려 있어 급박한 상황 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심정지 환자를 고려한 심장 제세동기(AED)가 탑재되지 않은 것은 아쉬웠다. 심정지 환자에게는 신속 출동이 필수적인 만큼 차후에는 심정지 환자 발생을 대비해 AED를 탑재하여 이륜차의 장점인 기동성을 극대화했으면 한다.

도시에서는 좁은 길을 통한 우회로가 많기 때문에 초기대응을 생각한다면 출동 시간 단축 등에 소방 오토바이를 활용 가치가 있어 보였다. 또한 농촌 지역에도 도입 시에도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로 등 구급차가 신속히 진입하기 어려운 구간에서는 신속히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

■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인구에 대한 고찰

○ 말레이시아 인구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에는

2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였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78로 국가소멸을 걱정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우리 창녕도 마찬가지다. 창녕의 일부 면은 1년 간 출생인구가 0명이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긴 곳이 많다. 2020년 8월 6만1천여명이었던 인구가 2023년 8월 기준 5만7천여명으로, 무려 4천5백 명 이상 감소했다. 창녕군 성산면 인구가 1,500여명인 것을 감안했을 때 2년 만에 3개 면이 소멸한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1인 출산율은 평균 2명이다. 2023년 인구는 3400만명 대인데, 2021년에 비해 130만명 정도가 늘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 소방재난국 공식방문 일정 중 오찬을 하면서 한 소방직원에게 자녀 수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는 “많은 편은 아니다.”, “자녀가 5명 있다.” 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말레이시아의 출산 정책에 대해 궁금해졌다.

말레이시아 현지에서는 4~5인 자녀를 가진 가정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다자녀가구 주택 지원 정책이 있는데, 자녀의 수에 따라 집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공무원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 넓은 집으로 가는 것을 선호한다고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인구와 관련한 공식 기관 방문 및 질의는 없었지만 다자녀 지원정책이 출산율 향상에 도움되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우리나라도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정책이 있지만 지원되는 규모에 비해 집값의 부담이 여전히 크고 육아 부담이 출산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남아선호 사상이 높다고 들었다. 남아를 낳을 때 까지 둘째·셋째 부인을 맞이해서라도 출산을 강요한다고 한다. 아마도

이슬람권 국가이고 이런 사회 관습적인 부분이 말레이시아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야기를 이어가다보니 말레이시아의 인구정책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으나 한정된 시간에 많은 것을 질의하기가 어려워 아쉬웠다. 인구증가에 대한 수학적 해답은 없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정책분야다. 그렇지만 실효성 없는 단기간 전입유도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다.

○ 싱가포르의 인구증가 비결

싱가포르가 1965년 독립할 당시 인구는 160만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현재 싱가포르의 인구는 592만 명으로 크게 상승했다. 싱가포르 현지 가이드는 싱가포르가 우리나라처럼 출산율이 높은 국가가 아니지만 싱가포르의 인구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으로, 다양한 출산정책에도 매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어 국가적인 문제라고 한다. 싱가포르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재정적 지원 위주의 결혼·출산 장려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싱가포르의 인구 증가 비결은 다름아닌 이민정책이라고 한다. 싱가포르에는 글로벌 기업이 많이 포진되어 외국 국적을 가진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다. 싱가포르 정부는 전문직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수 고급인력 외국인들이 싱가포르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을 아무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기준에 부합하는 고급인력 외국인들만 수용한다.

우리는 국경없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재다능한 청년들도 글로벌 기업에 취업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리고 싱가포르도 젊고 능력있는 외국인 청년들의 이민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말 그대로 싱가포르는 인적·물적자원이 모이는 세계의 허브다. 싱가포르의 이민정책은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하고 싶다.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장기적으로 청년층이 부족해진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역피라미드 형태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출산율이 비슷한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낮은 출산율을 보완해 인구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청년층은 나라를 지탱하는 허리다. 출산장려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싱가포르의 이민정책을 참고할만하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이 정책이 사회통합 저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내국인에게는 역차별 갈등, 외국인에게는 국가 충성심 문제 극복이 이 정책의 주요 과제로 남을 것 같다.

■ 싱가포르 비즈링크 장애인복지관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돌봄의 존재로서, 수동적 돌봄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싱가포르 비즈링크에 와서 놀란 것은 싱가포르는 장애인들을 돌봄의 존재로서 바라보기는 하지만, 능동적·독립적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싱가포르는 장애인들이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곳은 장애인(입소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시키고 실제 작업장에 배치하여 일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장애인들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능력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에 싱가포르 복지의

위대함을 느꼈다. 작업장에 단순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입소자별 특기와 흥미를 살려 직업 훈련시설에 배정한다.

입소자들이 잘할 수 있고 관심 있는 분야를 살리고자 하는 것에서 약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비즈링크의 배려심이 인상 깊었고 그래서 입소자들의 업무 만족도도 높은 것 같았다. 이 덕분에 효율 높은 생산이 가능해 보였는데, 이들이 만들어낸 물품 가운데 일부는 창이공항에 싱가포르 항공의 기내 물품으로 납품이 된다고 하니 국가 이미지 향상에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우리나라도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한 좋은 시책 같았다.

■ 노영도 의원

조선 의원의 신분으로 견문을 넓혀 창녕군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방문하게 되었다. 주어진 의무와 권한을 다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창녕군의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연수활동에 성실히 임했고 연수비용 이상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였다고 자부한다.

우리가 처음 방문한 말레이시아는 13개의 주와 3개의 연방 직할구로 구성되어 있고, 남중국해로 나뉜 말레이반도 지역과 보르네오섬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우리가 처음으로 방문한 랑갓시의회는 정부에서 임명한 24명의 의원들이 내부 검사, 사업기획, 법무, 감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체제에 맞게 적절히 조화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다음으로 방문한 소방재난국은 1883년에 15명의 선원들로 구성된 셀랑고르주의 소방재난 봉사자 모임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후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말레이시아 소방연합이 형성되었고 쿠알라룸푸르에 기반을 두게 되었다고 한다.

모든 재난 통보 및 접수는 통합 운영되어 소방서, 경찰서, 민방위, 해경이 전부 공유되는 통합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어 재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되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서 약 30km 떨어진 푸트라자야 신도시 행정수도를 시찰하였다. 푸트라자야 신도시는

1993년부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푸트라자야 지역에 IT 지구를 건설하는 동시에 인공도시를 조성하여 수도의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이전시키고 연방직할령으로 조성한 도시였다.

푸트라자야 신도시는 전체 면적의 38%를 공원과 호수로 조성하였으며, 도시 디자인에 전통문양을 고려하는 등 도심 과밀화 해소뿐만 아니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사전 도시계획 반영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도시라 생각이 되었다.

이후, 말라카 소방서와 세계문화유산 말라카 문화탐방을 진행하였다. 말라카의 관광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그에 따른 문명시설을 이용한 최첨단의 관광 시설을 견학하는 것과 더불어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생태관광도 함께 이루고 있어, 우리 창녕군 또한 말라카처럼 자연 자원을 관광상품화하는 생태관광의 도시, 과학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관광의 도시로 발전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다. 앞으로 창녕발전을 위해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할지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국외 연수 기간 동안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챙기고 배려해준 동료의원님과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 이 지면을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이동훈 의원

▣ 말레이시아(말라카)와 싱가포르 관광자원의 특색

○ 말라카의 역사성과 관광자원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관광 국가다. 아름다운 자연 휴양지 코타키나발루, 화려한 도시 야경이 인상적인 쿠알라룸푸르 등 세계적인 관광지가 많다.

말라카는 위 두 곳과는 다른 매력이 있는 도시였다. 말라카의 첫 인상은 우리나라 경주처럼 국가의 역사를 압축한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말라카 거리 곳곳을 탐방해보고 나니 세계적인 가치로 인정받은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말레이시아는 말라카해협을 중심으로 성장한 국가다. 말라카해협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최단거리로 이어주는 요충지로 이 해협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말라카다. 말라카는 이런 지리적 이점 덕분에 예로부터 국제 무역도시로 번성했는데, 과거 제국주의 열강들은 말라카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16세기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말라카는 이후 네덜란드와 일본의 식민지를 거쳐 20세기 초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까지 오랜기간 외세의 지배를 받았다.

식민 지배의 흔적을 말라카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거리에는 유럽식 건축물이 즐비했는데, 가장 먼저 방문한 산티아고 요새와 세인트폴 교회는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았다. 16세기 포르투갈이 세운 두 건물은 네덜란드 군과 전투를 하면서 대부분이 파괴되었다고 한다. 남아있는 건물의 흔적을 보면서 그 당시 말라카를 차지하기 위한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상상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땅에서 벌어진 전쟁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말레이시아인의 아픔이 느껴지는 듯했다.

세인트폴 교회 언덕 위로 올라오니 저 멀리 드넓은 말라카 해협과 말라카 중심부를 관통하는 말라카 강이 보였다. 지금은 관광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지만 과거에는 끊임없이 드나드는 무역선과 상인들로 북적였을 것이다.

언덕을 내려와 네덜란드 광장으로 향했다. 네덜란드 광장 일대는 마치 우리가 유럽에 온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유럽양식의 건축물이 즐지어 있었다. 일대 건물들은 온통 분홍빛을 띠고 있는데,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직접 가져온 벽돌로 지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19세기 중국 상인이 세운 시계 타워와 20세기 영국 식민지를 상징하는 빅토리아 분수대는 네덜란드 광장과 멋지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시대를 상징하고 나라를 대표하는 기술로 지어져서 더 아름답고 정교해 보였다.

말라카의 문화재는 보존상태가 뛰어났다. 문화재 대부분이 예전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성공적인 관광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풍부한 관광자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말라카에는 세인트 프란시스 공립학교(Sekolah Menengah Kebangsaan St. Francis)가 있는데, 이 학교는 무려 1880년에 지어졌다고 한다. 19세기에 지어진 건물을 아직까지 학교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웠다. 이처럼 보존과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 온 말라카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말라카 문화재를 탐방하면서 말레이시아와 약간의 동질감을 느꼈다. 우리나라도 과거 서구열강의 침략과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았다. 그래서 아픈 역사의 잔재물이 많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건축물을 놓고 철거와 보존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식민지 잔재물 보존을 택한 말라카의 모습을 보면서 무조건적인 철거보다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한다.

얼마 전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우리의 회에서는 문화 마중물 연구회(연구단체)를 구성해 기등재된 세계 유산의 관리 및 활용사례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번 의정연수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기 좋아보였다. 이번 말라카 방문은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의 발전 계기를 마련한 뜻깊은 방문이라고 생각한다. 미래에는 우리 고분군이 가야 고분군의 중심지로 발돋움해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되기를 바란다.

○ 싱가포르의 관광자원 확보 전략

말라카 일정을 마치고 다음날 싱가포르로 향했다.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싱가포르에 도착하게 되는데, 국경을 이동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지 않아 정말 싱가포르로 입국한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싱가포르라는 나라의 역사는 굉장히 짧다. 싱가포르는 원래 말레이시아 연방에 속해있었다. 그러다 연방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1965년에 독립하였다. 싱가포르는 영토가 작은 신생국가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발전을 이룩해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되었고 많은 여행자들이 찾는 국가가 되었다.

많은 여행자들이 찾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관광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주요 관광지라고 하면 대부분 센토사섬, 머라이언 공원, 마리나 베이 샌즈, 유니버설 스튜디오, 보타닉 가든 등을 소개한다.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싱가포르의 관광지는 공통적으로 수백년 이상 오랜 역사를 거쳐온 문화재보다는 근·현대에 탄생한 랜드마크가 대부분이다.

싱가포르에 와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싱가포르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보타닉 가든이었다. 보타닉 가든은 1859년 영국에 의해 조성되었는데, 개관한 지 160년이 넘었으니 싱가포르의 역사보다 오래된 셈이다. 유네스코 문화유산답게 정원의 규모가 크고 다양한 열대 식물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아름답게 가꾸어진 조경이 인상적이었다.

보타닉 가든을 견학하고 머라이언 공원을 가게 되었다. 머라이언 공원 일대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야경 명소였다. 공원 건너편 마리나 베이 샌즈라는 랜드마크 뷰가 더해져 일대가 웅장하게 느껴졌고 많은 관광객으로 북적이고 있었다.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마리나 베이 샌즈는 우리나라 쌍용건설이 시공한 것으로 유명하다. 건물에 경사를 주어 빌딩 최상부에 배 모양 건축물을 올린 형태는 현대건축 기술의 집약체이며 세계적인 우리나라 건축 기술에 감탄했다.

공원을 조금 더 걷다 보면 상반신은 사자, 하반신은 인어인 머라이언 조각상이 서 있었다. 물을 내뿜는 머라이언 조각상을 배경에 두고 입을 벌려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았다. 알고보니 싱가포르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하는데, 물을 받는 것처럼 각도를 조정해서 사진을 찍어 재물운을 얻어 간다는 의미에서 생긴 행위라고 한다.

싱가포르 도심 곳곳에는 도로 통제구간이 있었다. 통제하는 이유는 곧, F1 그랑프리 대회가 싱가포르에서 열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F1 그랑프리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경주대회인데, 월드컵·올림픽과 더불어 세계 3대 국제스포츠 행사다. 싱가포르는 이 대회를 2022년부터 2028년까지 개최한다고 한다. 적극적인 국제대회 유치는 많은 사람들을 싱가포르에 발걸음 하도록 만드는 좋은 전략인 것 같다.

전일 말레이시아 말라카를 견학했기 때문에 말라카와 싱가포르의 관광산업을 뚜렷하게 비교해 볼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말라카)의 관광산업이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역사성을 띠는 반면, 싱가포르는 화려한 랜드마크와 국제대회 유치를 중심으로 한 현대성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의정연수에서 관광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두 국가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향후 정책개발에 두 국가의 관광산업을 참고하여 지역관광 산업에 절충해 우리 지역이 관광도시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

■ 박상재 의원

○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첫인상

2023년 말레이시아의 1인당 GDP는 13,000불에 불과한데 국민들은 여유롭고 행복해 보였다. 지리적으로 적도 부근에 위치해 있어 일년 내내 따뜻한 기후이고 석유 등 천연자원도 풍부해 경제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나라라서 그런 것 같았다.

○ 말레이시아의 언어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어라는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과거 포르투갈, 네덜란드, 일본, 영국의 식민지였던 말레이시아는 오랜 기간 타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고유의 언어를 잃지 않았다는 것에 놀랐다.

언어는 민족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인, 중국인, 인도인 등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라고 한다. 여러 민족이 있음도 민족 간 통합을 이루어 낸 것은 말레이어라는 고유 언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한글이라는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와는 민족이 다르다는 인식을 할 수 있다. 한글이라는 언어는 세계에서 한국인만의 차별성이기 때문에 민족끼리 결속을 강화하게 하며 사회의 분열을 최소화하게 해준다.

우리가 의정연수 일정에서 만난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말레이시아는 영국의 식민 지배 영향을 받아 영어도 공용어로 쓴다고 한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은 엄청난 국가 경쟁력이다. 영어는 말레이시아가 세계적인 관광국가로 발돋움 하게되는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한다.

○ 말레이시아의 민족과 실질적인 통합 과제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인, 중국인, 인도인 등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다. 이 가운데 말레이계가 다수(62%)를 차지하며, 중국계(21%), 인도계(6%)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 말레이시아라는 하나의 국가 안에서 통합된 양상을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정책적으로 갈등 관계로 얽혀 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 내에서는 중국계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한다. 무엇보다 말레이시아의 경제는 대부분 중국계가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화교의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금융이나 부동산 등 대부분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계의 힘이 클 수밖에 없다.

대신 정치계는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말레이계가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 국왕은 당연히 말레이계이며, 국왕에 의해 임명되는 총리도 말레이계라고 한다.

경제부분과 정치부분을 주도하는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내면에는 두 민족 간의 갈등 양상이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미푸트라(Bumiputera) 정책이다.

부미푸트라는 말레이어로 토착민이라는 뜻인데 말레이계 사람들을 뜻한다. 말레이시아는 경제력이 낮은 부미푸트라를 약자로 규정한다. 그래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부미푸트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말레이시아 헌법에는 말레이계에 대한 우대를 명시함으로써 말레이계 사람들이 사회활동에서 다른 민족보다 훨씬 높은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민족 간 역차별 갈등이 크다고 한다.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부미푸트라 정책은 약자에 대한 보호가 아닌 다수를 위한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결국 말레이시아인을 위한 정책이 아닌, 말레이민족만을 위한 정책은 실질적으로 민족통합 저해 요소이며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말레이시아 민족 갈등은 국가통합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런점에서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으로서 가진 장점이 매우 큰 것 같다. 민족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단일민족이 사회 안정성에서는 훨씬 크기 때문이다.

○ 말레이시아의 매장문화

말레이시아의 국교는 이슬람교다. 인구의 65%는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그래서 사회 관습은 이슬람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은 말레이시아의 장례문화다.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는 과거에는 유교 영향을 받아 시신을 매장하였지만, 최근에는 불교문화인 화장 후 납골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문화권 국가답게 시신을 매장하는데, 특이한 것은 시신을 태아처럼 접어서 묘지에 안치하는 것이다. 고인이 태아로 돌아가 환생을 기원한다는 의미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를 향하도록 안치해야 하기 때문에 시신을 반듯하게 눕히지 않는다고 한다. 또, 묘지에는 둥근비석과 세모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둥근 비석은 남성을, 세모 비석은 여성을 나타낸다고 한다.

내세관의 의미도 다른데. 불교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윤회사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들은 죽음을 통해 영혼이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죽음을 기쁨으로 승화하는 말레이시아인들의 내세관이 인상 깊었다.

○ 자녀 교육 · 훈육

말레이시아는 가정교육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엄격하게 훈육한다고 한다. 말레이시아 학부모 80% 이상은 교사의 자녀 체벌을 찬성하고 있을 만큼 체벌도 마다하지 않는 교육방식이 인상적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교권추락 · 부모권위 추락에 대한 사회문제가 커 교육과 훈육방식에 대한 전반적이 재진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녀의 교육에 체벌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교육과 훈육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 푸트라자야 도시경관

말레이시아, 특히 푸트라자야에는 독특한 디자인 건물들이 많았다. 말레이시아는 건축 설계 시 동일한 디자인은 건축 허가를 불허한다고 한다. 이런 이유인지 푸트라자야 도심 곳곳에는 실험적 디자인 건물들이 많았고, 세계적인 건축 디자이너들이 활동하기 좋은 장소가 바로 말레이시아라고 한다.

이 외에도 총리 집무실, 시청, 법원 등 주요 관공서 건물들도 현대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았는데, 푸트라자야는 행정도시이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도시경관 덕분에 예술의 도시 이미지를 물씬 풍기게 했다.

건축 디자인은 예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데, 모든 공공 건축물에 다른 디자인을 적용하는 모습을 보니 대단히 놀라웠다. 우리나라도 공공 건축물 신축 시 종종 독특한 디자인을 도입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될 수만 있다면 우리 군에도 창녕을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들어섰으면 한다. 도시의 랜드마크는 관광객 유입의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 말레이시아의 팜유 산업 문제

하늘 위에서 본 말레이시아의 첫 풍경은 넓은 대지에 지평선까지 끝없이 펼쳐진 야자수 밭의 모습이였다. 쿠알라룸푸르로 가는 고속도로 사방에는 야자수로 가득했다. 알고 보니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야자수는 아니고 팜나무(야자수의 일종)라고 한다. 팜나무에서는 팜유를 생산할 수 있는데, 팜유는 식품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항공유에 사용한다고 한다. 팜나무는 여러 분야에 활용도가 높은 자원인 것 같다.

말레이시아는 세계적인 팜유 생산국인데,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전 세계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팜유는 말레이시아 수출액 기준 3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야자수는 경관 목적으로 심어져 있는데(제주도) 말레이시아는 수출산업을 목적으로 식재하였다는 것에 큰 차이를 느꼈다.

드넓은 팜나무 밭을 보니 말레이시아도 우리나라처럼 1차산업의 비중이 적지 않겠다고 느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도 우리나라처럼 1차 산업 부분에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팜유 산업 종사자들은 임금에 비해 업무강도가 높고 노동시간이 길어 대다수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팜유 산업 종사를 기피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의 의존도가 대단히 높다고 한다. 현재 말레이시아 팜유 산업 노동자 중 70% 이상이 외국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1차산업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 특히 우리 창녕군은 마늘·양파 등 노동력이 중요한 1차산업 중심지역인데, 농업 기피현상으로 많은 청년들이 인근 대도시로 유출되고 있다. 창녕군 농업 종사자는 대부분 고령화되어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번기 수확이 불가능할 정도로 노동력이 부족하다.

말레이시아는 개발도상국이다. 우리나라도 그래왔듯이 개발도상국 단계에서는 1차산업보다는 2차·3차산업 육성에 높은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의 팜유 산업만큼은 국가적인 산업이므로 소홀히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창녕군에서는 외국인 인력 전담팀을 신설하여 농촌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노동력 감소는 비단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1차산업 기피와 노동력 부족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이번 의정연수에는 팜유 농장 견학 일정이 없었지만 랑갓시의회 공식 방문을 통해 짧게나마 팜유 산업이 직면한 상황을 접할 수 있었다. 1차산업은 시대별로 많은 인식 변화를 겪었다. 농업이 건재하려면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 말레이시아도 하이테크 농업시대로 가야함은 틀림없는 것 같다.

○ 빈국에서 경제 강대국으로, 싱가포르 발전의 원천

싱가포르는 작은 영토에 천연자원이 없는 신생국가지만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다. 많은 싱가포르 사람들은 국가 발전의 원천으로 리관유 초대 총리의 업적들을 꼽는다.

리완유 총리는 강력한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나라를 이끌었는데, 위법한 행동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태형을 도입한 것으로 유명하다. 신생 국가의 불안한 사회를 강력한 법을 통해 안정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한다.

싱가포르 발전의 원천으로는 민족 통합을 꼽고 싶다. 싱가포르는 독립할 당시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리완유 총리는 민족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국민통합 정책을 펼쳤다고 한다. 법으로 민족 간 차별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불안한 사회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 통합에 성공해 국가의 역량을 한 군데로 집중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본다.

이 외에도 반부패 정책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관습을 철폐하고, 영어 공용화를 추진함으로써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과감한 결단력을 보여주었다고 본다.

국가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미래를 내다본 정책을 펼친 리완유 총리의 혜안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다. 오늘날의 싱가포르를 만들었고,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은 지도자임에도 싱가포르에는 리완유를 상징하는 동상이 없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라는 깊은 뜻이 아닐까? 나라의 부강함은 넓은 영토에서도, 풍부한 천연자원에서 오는 것도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가는 것임을 새삼 느끼게 된다.

■ 이가은 의원

○ 의정연수의 다짐

2023년도 공무국외연수 일정과 연수 국가가 정해졌다. 연수 기간은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4박 6일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다녀오는 일정이다. 연수 첫날은 비행시간이 길어 해가질 무렵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다.

싱가포르는 모두가 아는 세계의 선진국이다. 말레이시아는 개발도상국이지만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8.7%)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이다.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두 국가를 방문하는 만큼 비교 견학을 통해 선진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군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 그 외에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더 유용한 시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 4박 6일 짧지만 알찬 일정을 보내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 말레이시아 랑갯시의회 방문

첫 공식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랑갯시의회를 방문했다. 거대한 스크린에 창녕군의회를 환영한다고 표시된 인사말이 인상적이었다. 쿠알라 랑갯은 말레이시아 셀렝고르 주에 있는 도시이며 44.5%의 도시거주자와 55.5%의 농촌거주자가 있다.

랑갯시의회의 운영 방침은 살기 좋은 도시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스마트한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글로벌 수준의 도시 클러스터 구현을 목표로 한다. 쿠알라 랑갯은 2025년까지 지속가능하고 종합적이며 경쟁력 있는 도시발전을 비전으로 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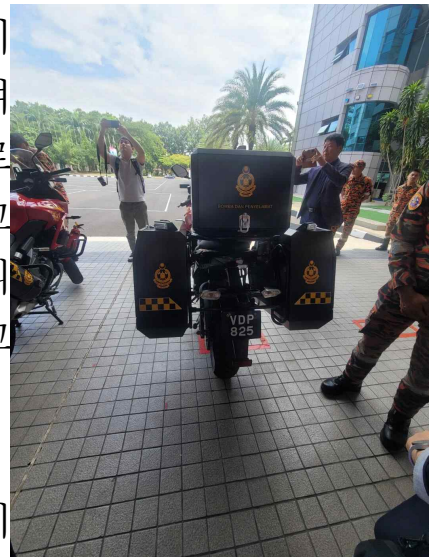
2020년 기준 랑갓시의 인구는 307,787명이다. 2030년도에는 430,000명을 목표로 삼고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인구감소 문제를 겪는 상황에서 10년 만에 무려 37% 증가가 가능할지 의문스러웠다.

가이드는 말레이시아는 자녀를 많이 낳으면 주택을 마련해주는 등 여러 출산 혜택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 나라에서는 5명 이상 자녀를 가진 세대를 다둥이 가정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명 이상을 자녀를 가진 세대를 다둥이 가정으로 분류하여 다자녀 혜택을 준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가 느끼는 인구 적정선이 얼마나 다른지, 인구 절벽 앞에 선 우리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느끼게 되었다. 향후에도 랑갓시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면 지속적인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말레이시아 소방재난국 방문

푸트라자야에 있는 소방재난국으로 이동하기 위해 아침 일찍 길을 나섰다. 예정시간보다 30여분 일찍 도착하였는데, 소방재난국 운동장으로 보이는 곳에 소방 직원들이 제식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훈련을 받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소방재난국 주변은 지금 당장 출동상황이 발생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었고 차고지 내에는 소방 장비도 부족함 없이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시설물과 소방 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에서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직원들의 각오를 엿볼 수 있었다.

소방재난국 회의실로 들어가 시설현황을 프리젠테이션으로 소개받고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공식방문이 진행되었다. 말레이시아 소방방재청은 1883년 쉘랑고에서 15명이 자원하여 소방자원봉사 단체가 만들어진 것을 시초로 1895년 자원봉사단체가 소방방재청으로 지정된 이후 1976년 1월 1일 쿠알라룸푸르 소방방재청을 포함한 여러 지역을 통일한 소방방재청이 만들어졌으며, 1977년 1월 1일 말레이시아 정부의 건설부 산하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19세기부터 시작된 말레이시아 소방 방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소방기술의 노하우나 유사시 대응력이 높은 수준일 것 같았다.

시설현황을 소개받고 시설물 견학을 하였는데, 도로나 차량 통행이 어려운 산악지대나 교통혼잡을 대비한 긴급출동 오토바이는 응급상황 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 보였고 우리군이 바로 접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았다. 이 오토바이에는 응급배드 등 응급으로 사용되는 모든 비상 물품이 구비되어 있는데, 신속한 구조나 이송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천군만마라고 생각한다.

푸트라자야 소방재난국의 비전은 효율적으로 화재를 막고 더욱 더 안전하고 인도주의적으로 소방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모로 최선을 다하는 이들의 모습이 가슴에 와닿았고 말레이시아 시민들 곁에는 이들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세계문화유산 말라카 문화탐방과 리버크루즈

말라카는 말레이 반도의 서쪽 해협에 위치한 국제 무역항으로, 과거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등의 식민지로 역사적 문화적 유산이 군데 군데 보였다. 2008년에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세인트몰 교회 언덕을 넘으니 네덜란드를 주입 시키는 붉은 건물이 눈에 띄었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 사진찍고 아이들은 마차를 타고 평화스런 모습에 괜시리 덩달아 즐거웠다. 저녁을 먹고 말라카의 구석 구석 강물 따라 펼쳐진 야경은 낮의 피로를 싹 가시게 했다.

○ 싱가포르 비즈링크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

비즈링크 장애인 복지시설은 불우한 개인, 특히 장애인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고용을 통해 봉사하는 비영리 조직이다.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람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데, 입소자들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이들이 적응할 때까지 많은 직업 훈련과정을 제공한다. 개인에게는 독립성과 존엄성을 보장하고 국가적으로는 사회 통합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비즈링크는 사회 안정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다.



비즈링크에는 입소자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 스킬과, 보호워크샵 프로그램, 작업치료 프로그램, 액티비티센터, 작업평가 등 다양한 실무교육이 있다. 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많은 훈련과 관심이 필요하다. 비즈링크는 장애인들의 관점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러한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우리군 장애인 복지관도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역량 강화프로그램이 도입되기를 기대해 본다.

○ 싱가포르 도시계획관 URA

URA는 싱가포르의 도시계획과 개발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방대한 도시재개발청의 규모에 걸맞게 싱가포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싱가포르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URA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도시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방문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좋았다. 이 덕분에 시민들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시민들의 참여가 많다는 것은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싱가포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은 공간. 싱가포르의 모든 것을 담은 공간. 여기에서 우리는 5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룬 싱가포르의 저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계획-준비과정-발전의 3단계를 거친 싱가포르를 보며 창녕군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보람된 방문이었다.

○ 세계유산 보타닉가든

보타닉가든은 싱가포르 최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2015년에 지정되었다. 정원 속의 도시라는 싱가포르의 자랑인 보타닉가든은 1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싱가포르 최대의 국립 식물원이다. 이곳에는 아시아 최초의 어린이 전용 정원이 조성(제이콥 발라드)되어 있고 식물학 및 원예학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정원의 다양한 식물들과 아름다운 조경을 감상하니 저절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 같았다.

거대한 규모의 정원답게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과 조깅을 하는 시민이 많았다. 한 어르신이 민소매와 미니스커트를 입고 가든을 거니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남녀노소가 건강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니 싱가포르 국민들의 평균수명(83.2세)이 긴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우리 창녕군은 지난 9월 교동 고분군과 송현동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노력의 결실을 이루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보타닉 가든을 보면서 우리 창녕 교통과 송현동 고분군도 군민에게 사랑받는, 고대 가야 문명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길이 보존되길 바란다. 아울러, 화왕산 군립공원과 창녕천이 어울어진 자연 친화 문화재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

○ 국외연수를 마치며

9대 의원으로서 처음으로 접하는 국외연수였기에 4박 6일간의 뽀뽀한 일정이었지만 의정활동의 연장이라는 신념으로 열심히 보고 적고 많은 것을 느꼈던 연수였다.

연수 일정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50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싱가포르의 힘이었다. 싱가포르는 건물의 하자보수 기간이 30년이라고 한다. 이런 작은 부분 하나만 봐도 싱가포르의 발전의 원동력이 과히 짐작이 가는 부분이다.

싱가포르는 세계의 허브로서 그 유명한 창이공항이 있는 나라다. 창이공항은 우리나라 인천공항과 연간 이용객 1~2위를 다툴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싱가포르는 창이공항 5청사를 새로 건립하고 있는데, 5청사는 기존 1~4청사 합친 것보다 규모가 더 크다고 하니 세계 물류와 여객의 중심이 될 싱가포르의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 대목이다.

또한 운하를 이용한 항만개발, 원유의 90%를 정유하여 수출하는 정유 산업, 동남아의 금융 허브로서 1,300개가 넘는 다국적은행 보유, 정원과 조화를 이룬 그린시티 조성 등 많은 부분이 오늘날 싱가포르를 있게 한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자원 부국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에 비해 개발에 여유가 있는 나라인 것 같다. 그러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꾸준히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수도와 외곽지역 간 빈부격차가 크고 환경문제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점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석유매장량은 풍부하지만 정유기술이 없어 석유를 수입한다고 하는데, 자신들이 보유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 김정선 의원

○ 랑갓시의회 방문

현지에서 만난 한국인 통역사는 말레이시아는 K-Pop 영향으로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했다. 랑갓시의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의 표정과 응대에서 정말 우호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나라 간에 그 어떤 물리적 무역이나 정치적 명분보다 문화외교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쿠알라룸푸르는 최근 여러 분야에서 개발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을 사진과 자료로 설명하였다. 도시계획의 하나로 인구계획도 향후 10년 후에는 현재 인구의 35% 증가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했다. 귀를 의심케 하는 부문이었다. 질의 시간에 인구감소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지만 특히 창녕은 인구소멸 위기 지역임을 설명하며 부럽다는 인사를 하였다. 그렇지만 10년 만에 35% 인구 증가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와 또한 어떻게 그 증가율을 목표치로 삼을 수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답변의 모습에서 자신감과 여유가 느껴졌다. 그 증가율은 최근 몇 년 간의 증가율을 감안하여 나온 수치이며 전혀 무리한 계획이 아니라고 하였다. 말레이시아도 그렇지만 쿠알라룸푸르는 아직도 개척해야 할 땅, 개발할 자원이 무궁하다고 설명하였다. 인구정책과 함께 개발이 가능하다는 뜻이었다. 성장동력으로서의 미래 자산을 많이 가진 앞으로 발전이 열려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적지와 문화유산도 함께 잘 보호하고 균형 있게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는 인사를 하였다.

인구정책과 관련하여서는 현지 한국인 가이드에게서 듣는 설명들이 훨씬 놀랍고 부러웠다. 정말이지 한시바빠 벤치마킹하여 수립해야 할 국책사업이라 여겨졌다. 말레이시아에선 자녀들이 5명부터 다둥이라고 한다고 했다. 2명의 자녀를 둔 가정은 덩크족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에서 넓은 평수의 아파트는 자녀가 많은 가정만이 누릴 수 있는 정부 지원이라고 했다. 자녀 수에 비례하여 넓은 아파트를 분양 받는다니 얼마나 공정하고 꿈같은 정책인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녀가 없거나 적으면 넓은 평수에 살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자녀 수에 따라 교육지원금을 비롯한 다양하고 전폭적인 혜택이 주어진다고 했다. 교육비 관련해서는 교육이 끝나는 시기까지 저금리 및 무이자 대출까지 가능하더니 출산이나 양육의 부담감이 거의 없다고 했다. 다자녀로 인한 층간 소음도 엄마의 훈육이 효과가 없으면 아파트의 언니 격인 사람이 나서 혼을 내거나 체벌하는 문화가 있다고 했다. 그 방법은 전혀 무리가 없으며 효과적인 교육방식이라고 했다.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아니지만 부럽고 또 부러웠다. 개인적으로 출산이 경제적인 것만으로 연결 지어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고와 생활양식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사정으로 보자면 엄청난 교육비 부담과 신혼 부부들의 내 집 갖기 계획으로 임신을 미루거나 출산을 제한하는 부분이 크지 않은가, 이러한 정책이 도입되어 이루어진다면 분명 효과적인 인구 증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 희망을 생겨난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내가 사는 인구소멸 위기 지역 창녕에서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창녕 예산에서 미래세대의 투자는 옹색하고 궁색하기 짝이 없다. 아동 예산이 출산율과 비례하여 줄어든다고 하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 KL TOWER 견학

452m, 88층 높이의 쌍둥이 빌딩으로 이미 말레이시아의 랜드마크가 된 거대하지만 우아하고 세련된 느낌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상품이자 한 도시의 자부심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수많은 관광객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가이드로부터 우리나라 삼성과 일본이 참여하여 경쟁하며 각 1동씩 건물을 완공시키기까지의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들었다.

장거리 비행으로 먼 이국땅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로 만든 건물을 마주하며 뿌듯하고 자랑스러움으로 자부심과 민족적인 긍지가 느껴졌다. 여러 사정으로 일본보다 35일 늦게 착공하였지만 1일 2교대 24시간을 매달려 완공은 일본보다 6일을 앞당겼다니 한국인 특유의 근성과 투지가 발휘되었구나 싶었다. 야경이 더 아름답다고 하지만 방문한 시간이 밤이 아니었고, 최고급 쇼핑센터와 레스토랑을 비롯한 휴식 공간이 있다는 내부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아쉬움은 없었다.

관광지에서나 쿠알라룸푸르의 모든 가게에서 만나는 트윈타워의 미니 어치 상품은 이 나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문화유적지도 아닌 1998년에 지어진 마천루 건물이 웅장한 위용으로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다. 최고의 문명이 집약된 기술과 아름다움은 그 자체만으로 미래 관광산업의 새로운 대안인 듯하다.

실은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한 첫날부터 내 눈을 사로잡았던 건 모양이 제각각 다른 도시의 건물들이었다. 하나같이 특색이 있고 디자인이 개성적이었다. 획일적인 직사각의 콘크리트 건물은 찾아볼 수 없었다. 차량 이동 시 건물 구경만으로도 눈 호강을 하였으며 볼수록 신기하

였다. 도시 건물 하나하나가 제각각의 작품처럼 여겨졌다. 현지 가이드에게 건물에 대한 내 생각을 밝혔더니 이 나라는 건물 디자인이 30% 이상 동일하면 아예 허가가 나지 않으며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건물 디자이너들이 많고 우대받는 직종이라고 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한 정책 없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로 넘어가는 긴 이동시간에 끝없이 펼쳐진 평야가 산이 많은 우리나라와 비교되었다.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4일간 체류하며 느낀 말레이시아의 국토는 자연환경이 살아있고 도시는 잘 디자인되었으며 사람들은 여유롭고 편안했다. 1년 내내 비슷한 기후 탓인지 사람들은 바빠 보이거나 표정도 심각하거나 굳어 보이지 않고 자연스러웠다. 다음에 온다면 몇 달쯤 게으름 피우며 쉬고 싶다. 한 일 년쯤 점심(마음에 점을 찍는다.)을 먹으며 무위의 호사를 누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 싱가포르 장애인 복지시설 비즈링크 방문

장애인 복지시설인 BIZLINK는 37년의 역사를 지닌 비영리단체라고 했다. 비즈링크에 가는 차량에서 가이드는 싱가포르에는 거리나 차량에서 장애인들을 많이 만난다고 했다. 한국에서 처음 싱가포르에 와서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장애인이 많은지 이상했다고 했다. 그 이유가 국가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으며 시민들이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을 당연시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처럼 장애를 굳이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사회라도 장애인 스스로 가지는 위축 심리나 사회활동에 자격지심이 왜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며 센터에 들어섰다.

이 단체의 미션은 장애로 인해 소외된 사람들의 자아 독립을 돕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사회복귀를 돕는 것에 있다고 하였다.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무엇보다 심리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첫 번째로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과 활동을 하며 소통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사회 환원을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을 꾸준한 트레이닝 통해 숙달시킨다고 했다. 이를 Train & Place Programmes라고 소개했다. 세 번째로는 보호자들을 서포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시도로 보호자들의 즐거운 삶을 지원함에 있다고 한다. 비즈링크의 추구의 목표가 분명하여 네트워킹과 서포트를 통한 사회생활이 가능하게 함에 있다고 했다.

밖으로 보이기에는 그다지 큰 시설로 보이지 않았는데 250여 명이 입소하여 있다고 한다. 그중 30%는 지적장애인이며, 30%는 하체 장애인이고, 40% 정도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다고 했다. 그들은 이곳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숙달한 뒤 다양업종으로 사회에 나간다고 했다. 신체적 장애만 있는 경우 아이티 쪽으로 주로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종사하거나 체력이 되면 택배 노동자나 청소시설 일을 많이 한다고 했다. 그밖에 선물 세트 포장이나 카드 및 꽃다발 제작을 하며 일부는 음식 관련 일에도 종사한다고 했다. 내부를 둘러보며 작업현장에서 집중하며 일하고 있는 입소자들의 얼굴 표정이 밝아 신뢰감이 생겼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현재 비즈링크의 운영에 국회의원의 도움과 관심이 큰 힘이 된다고 하였으며, 그 국회의원을 소개하고 자랑하며 감사한 뜻을 표현하였다. 싱가포르는 정치인들이 장애인 단체에 꼭 한 분씩 계신다고 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비영리 단체로서 운영의 어려움은 이곳 역시 겪고 있지만 정책이 좋아 노력한

만큼 지원이 된다고 했다. 가령 100달러의 기부금을 모으면 정부가 100달러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 장애인 단체를 홍보하고 알리는 활동을 한다고 한다. 참 좋은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창녕에서 접목하고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자폐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있어 비영리단체이지 의료 기관이 아닌데 자폐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이나 보살핌이 가능한지와 자폐 보호자를 위한 지원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그 부분은 역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곳 종사자들이 모두 지도자급 교육을 매년 받는다고 하였다. 자폐 부모에 대한 지원은 아직 미흡하다고 하였다. 모든 장애인의 보호자가 다 힘들겠지만, 자폐부모는 심리적으로 더 힘든 것 같다는 평소 생각이었다.

창녕은 자폐스펙트럼 장애자 파악과 부모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상태라고 알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행정의 관심과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창녕에서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단체나 시설에서 보호나 트레이닝을 받으며 사회로 환원할 기회가 많았으면 한다. 아울러 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국외연수로 하여 얻은 경험과 생각들을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과 다양한 시도들을 고민하는 것이 숙제로 남았다.

- 연수단은 쿠알라 랑갓시의회를 방문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와의 비교 분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 의회 구성원들의 환대와 함께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와는 다른 연방제 입헌군주 국가의 의회 운영 방식,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행정부-의회 간 관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양 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말레이시아 소방재난국은 소방용품, 화재진압용품 등의 검인증 제도 및 기술지원 등 한국과의 교류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지원으로 말레이시아 소방 유관기관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함. 지자체 차원에서도 해외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등 교류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기술력을 지닌 기업에 대한 관련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기업 유치를 위한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 장애인의 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싱가포르 장애인복지시설 Bizlink는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음. 장애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하고 적응해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특히 온라인쇼핑몰, 그래픽디자인 등 디지털 관련 교육 등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고 있었음. 이 같은 장애인의 취업 및 교육 지원은 장애인 및 소외계층이 훈련과 고용을 통해 일반인과 사회 속에 함께 살아가는 사회 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개발 가능할 것임.

○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시민참여 확대

- 싱가포르의 도시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수립된 계획안을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음. 도시 개발 및 시설 계획에 있어 관 중심 추진이 아닌 시민들의 참여 보장을 통해 주민이 직접 도시 형태와 기능에 대해 함께 풀어간다면, 우리군의 특색을 반영하는 도시계획으로 시민이 살고 싶은 정주요건 구성을 통해 우리군 인구유입에도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창녕의 고유한 생태 브랜드를 다시 활용하는 장기적 마스터플랜 구축

- 푸트라자야 도시계획 개념은 21세기형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구축이라고 함. 도시의 규모와 성격에서 물론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도시 컨셉은 우리 군에 일부 도입해 볼만하다고 생각함. 도시 면적의 약 40%를 녹지공간, 인공호수와 인공습지로 구성한 푸트라자야는 신행정수도의 성공사례일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관광도시로도 탈바꿈하고 있음. 이는 도시와 자연의 조화로 창녕군이 지닌 장점을 살려야만이 도시가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창녕군이 보유한 ‘생태’ 라는 특성화된 콘텐츠 등 다양한 연계와 고려를 통해 발전해갈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함.

참고1 싱가포르 국가현황

1) 일반사항

- 국명 : 싱가포르공화국 (Republic of Singapore)
- 수도 : 싱가포르(Singapore, 도시국가)
- 인구 : 564만명 (2022, IMF)
- 면적 : 719km² (서울의 약 1.2배)
- 언어 : 영어(48%), 표준중국어(30%), 말레이어(9%), 타밀어(3%)의 4개 - 공식언어 및 기타 언어
- 종교 : 불교(31%), 기독교(19%), 이슬람(16%), 도교(9%), 힌두교(5%) 등
- 민족 : 중국계(74%), 말레이계(13%), 인도계(9%) 등
- 기후 :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

2) 정치현황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의회구성 : 임기 5년의 단원제(직선 93석, 지명 9석, 무선거구 2석)

3) 경제현황

- GDP : 4668억\$ (2022, IMF)
- 1인당GDP : 8만 2808\$ (2022, IMF)
- 경제성장률 : 3.6% (2022, IMF)
- 화폐단위 : 싱가포르달러(1미국달러 = 1.38 싱가포르달러, 2022 평균, 세계은행)
- 총 교역액 : 9,919억 \$
- 수출액 : 5160억\$
- 수입액 : 4758억\$
- 물가상승률 : 6.1% (2022, IMF)
- 실업률 : 2.1% (2022, IMF)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1970.11. : 대표부 설치
- 1972.05. : 총영사관 승격
- 1975.08.08. : 수교(대사관 승격)
- 총 교역액 : 306억\$ (2022, 한국무역협회)
- 수출액 : 202억\$
- 수입액 : 103억\$

참고2 말레이시아 국가현황

1) 일반사항

- 국명 : 말레이시아 (Malaysia)
- 수도 :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약 181만 명)
- 인구 : 3299만명 (2022, IMF 추정치)
- 면적 : 33만 252km² (한반도의 1.5배)
- 언어 : 말레이어(공용어), 영어, 중국어
- 종교 : 이슬람교(국교), 불교, 힌두교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
- 민족 : 말레이계(62%), 중국계(21%), 인도계(6%), 외국인 및 기타(11%)

2) 정치현황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양원제, 하원 우위)
- 국가형태 : 선임제 입헌군주제

3) 경제현황

- GDP : 4079억\$ (2022, IMF 추정치)
- 1인당GDP : 1만 2634\$ (2022, IMF 추정치)
- 경제성장률 : 8.7% (2022, IMF 추정치)
- 화폐단위 : 링깃(1달러 = 4.4링깃, 2022년 평균, 세계은행)
- 총 교역액 : 6,476억\$
- 수출액 : 3523억\$
- 수입액 : 2953억\$
- 물가상승률 : 3.4% (2022, IMF 추정치)
- 실업률 : 3.8% (2022, IMF 추정치)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1960.02.23. : 외교관계 수립
- 1962.05. :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설치
- 1964.04. :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 설치
- 교역: 267억\$ (2022, 한국무역협회)
- 수출액 : 115억\$
- 수입액 : 153억\$
- 수출품목 : 선박, 집적회로반도체, 경유 등
- 수입품목 : 천연가스, 집적회로반도체, 중유 등

※ 자료 출처 : 외교부(www.mofa.go.kr)